

부처님 苦·樂 버리고 중도로 깨쳐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8>

우리는 부처님을 칭송하면서, 성인 가운데 성인(聖中聖)이시며, 온 세상(三界)의 범왕이시고, 만 생령(四生)의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한다. 지면 관세상불타관의 변천을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은 남정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원전 623년을 세계 공통으로 하고 있다.

4. 출가(出家) : 태자는 어릴 때 바라문 스승으로부터 문무를 닦아 모두 통달하게 된다. 나중에 성 밖으로 소승을 나갔다가 높고, 병들고, 죽은 이와 출가

두고 익힌 뒤에 자신도 알고 저쪽도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행이 성도(成道)의 원인이 아니라 불교불라의 팔정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른 도를 깨닫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5. 성불(成佛) : 태자는 고행이 성도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곧 고행을 버리고 니연선하 길을 가서 목욕을 하였다. 소 처는 아가씨가 준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뒤, 가야

초의 발심이다."고 하였다.

7. 수기(授記) : 세존께서 옛날에 보살도를 행하실 때 이름이 '선해'였다. 제8 부동지(不動地)를 증득한 뒤에 연등불로부터 "장차 91겁을 지난 뒤를 '현겁(賢劫)'이라고 하니, 그 때 마땅히 부처가 되면 호를 '석가모니'라 하라."고 수기를 받았다. 『불보행집경』과 『서유경』참고

8. 전법륜(轉法輪) : 세존의 설법은 녹아원에서 시작되어 루시

은 남전과 북전이 서로 다른데, 북전은 『대반열반경』이고, 남전은 『불유교경』이다. 한방종에 원칙적인 것은 중도의 뜻을 나타낸다.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한 이유는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염원하는 뜻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했다.

『증일아함경』에 이르기를, "왜 부처에게 공양해야 하는가? 부처는 항복하지 않는 사람을 항복케 하고,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며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케 하며, 열반하지 않은 이를 열반케 하고, 보호할 이 없는 이를 보호하고, 장님에게 눈이 되어 주고, 병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기 때문이다. 부처는 악마나 원신보다 뛰어나서 가장 훌륭한 복전이다. 공경할 만하고 귀하게 여길 만하니라.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였다.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일은 기본이다. 마땅 보살이 『붓다차리타』에서 "이 삶을 부처의 삶으로 하겠다(此生爲佛生)"고 하였듯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기 위해 서도 부처님의 일대기를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인총림 울원장>

"아미타불 염불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참오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문과 수행은 마음을 밝히는 것에 기인하리라. 마음을 밝히는 요건은 염불이 제일이니,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아미타불을 염하며 반드시 아미타불을 뵈게 되어 다른 방편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연히 마음이 열리나니, 이렇게 염불함이 마음을 밝히는 요건이 아니겠는가. 또한 마음을 밝히는 요건도 염불이 제일이니, 일념으로 염하며 서로 상응하면 일념이 부처님이다. 염마다 상응하면 염마다 부처님이다. 구슬을 흐린 물에 넣으면 흐린 물이 맑아 지듯이 부처님 명호를 산란한 마음에 두면 산란한 마음이라도 부처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렇게 염불함이 마음을 밝히는 요건이니라."

모든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부처님을 찬양하지 않은 부처님이 없다고 한다.

또한 사바세계의 중생과 특별히 인연이 가깝고 자비가 무량하신 분이 아미타부처님이십니다. 때문에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범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여 주듯, 죄를 많이 지은 중생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아미타불은 자비를 베풀어 죄업을 소멸하며 주시고 극락왕생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수행방편은 길을 갈 때 두 발로 걷는 것과 같고, 아미타불은 목적지를 향하여 우마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불을 염불하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을 염하기에 앞서 수행자와 불자들은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대원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는 실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공염불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명심하여 염불을 하되 보면 나로 인해 아미타부처님의 위신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나도 모르는 새 마음이 밝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말세중생과 재가자들에게는 염불이 가장 좋은 수행의 방편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는 이 몸이 누구인가를 관하는 것은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여의주는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망상을 버리고 자꾸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저절로 염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염장이 소멸되니 염불은 정토에 왕생하는 좋은 수행법이라 하겠습니까. 많은 불자들이 아미타불을 근본수행법으로 삼아 무량행복과 큰 깨달음을 이루길 서원합니다.

정리=주몽직 광주지사장

법회중계

광주불교능인회

<2000년 2월 19일>



정암 스님 <울천사 주지>

믿음·대원·실천행으로 앉으나 서나 누우나 늘 염불할때 정토 왕생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성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간경·염불·참선·주력은 불교의 4대 수행법입니다. 불법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번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중 한가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자의 바른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미와 특기가 다르듯 자기에게 맞는 수행의 방편 또한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염불을 강조할까요? 또 지방에 존재하는 부처님이 무수한데, 왜 굳이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는 것일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처님은 모두 신통력이나 지혜는 같습니다. 부처님마다 원력과 인연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시대의 모든 부처님 가운데 원력과 인연이 제일인 분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이십니다. <무량수경>을 보면 지방에 계신

기원전 623년 복인도서 출생 45년간 300회 강경·80세 열반

촌의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아서 49일 동안 중도를 실천하여 마침내 12월 8일 동이 를 무렵 대각을 이루고 부처가 되니 바로 한 자도 역시 제도될 인연을 얻게 하였다.

9. 원적(圓寂) : 루시나 나라 사라수 사이에서 한방종에, 머리는 북쪽,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여 길상와로 누우신 후, 제자들 앞에서 그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기를 발원하였는데, 이것이 최

나나라에 이르러 끝났는데, 45년 동안 실행하시면서 300여 회의 강경으로 마땅히 제도할 자를 모두 제도하시고 아직 제도하지 못한 자도 역시 제도될 인연을 얻게 하였다.

나나라에 이르러 끝났는데, 45년 동안 실행하시면서 300여 회의 강경으로 마땅히 제도할 자를 모두 제도하시고 아직 제도하지 못한 자도 역시 제도될 인연을 얻게 하였다.

오계상경-2

수행자를 보고 인생의 고통과 무상을 깨닫고, 마침내 29세에 출가하여 도를 배우게 된다. 6년 동안 스승을 찾다니며 고행을 한 뒤, 35세에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고, 45년 간 설법하신 뒤 80세에 열반에 들었다.

인도에서 외도들은 대부분 3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세존은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외도들에게 배운 바를 모두

"불교는 가장 합리적인 철학"

세계의 불교학 <8> 영국 ③

이들 연구서를 텍스트로 불교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런던대 토마스 키팅(Thomas Kington·역사학) 교수는 "이 시기에 불교는 영국인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철학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며 단순한 교리 연구에서 철학 연구로 진화했던 불교학 풍토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사실 신지학회와 같이 영국의 사상계에서는, 불교를 수용하면서부터 풍부한 영감을 토대로 논리를 펴는가 하면 동양적 사유 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내세우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불교가 영국의 근대 사상과 접목해, 복잡하게 얽힌 실태와 같은 영국 특유의 불교철학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다분히 팔리경전협회(Pali Text Society)의 학문적 업적에 힘입고 있다. 이 학술단체는 영국의 대표적인 팔리어 경전 연구자 리스 데이비스(Rhys Davids·1845~1922)에 의해 1881년 창립되었다. 팔리어 삼경과 주석서를 영역



영국에선 다양한 인종학문의 학자들이 모여 체계적으로 불교를 연구한다. 사진은 캄보리지대 불교 연구팀.

자적인 연구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지역에서 소그룹 규모로 불교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부 비판이 일어났다.

당시 영국에서의 불교학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류학, 동양학, 비교 종교학, 법학, 철학, 심리학, 종교학, 신학 등과 같은 인접 학문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심도 있는 불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불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맨체스터에서 활동했던 불교학자들은 불교를 주제로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학문적인 연대를 위해 영국불

교학협회(United Kingdom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의 창립을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협회를 이끌고 있는 맨체스터대 커신스(Cousins·비교종교학) 교수는 "협회의 창립은 불교학계가 본격적으로 불교학 연구에 나섰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는 현재 방남아시아·중앙아시아 불교, 서구불교의 발전을 포함하여 불교의 역사적·현대적 측면에서의 연구, 사회문화적 이론적·수행적·방법론적 연구, 불교의 경전적·언어학적·고고학적·미술사학적 연구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별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nia.com)

근본교리와 英 근대사상 접목 학자들 연대 불교학 심층 연구

행의 보살도 실천에 앞장서기도 했다. 험프레이스가 이끌었던 런던 불교회는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한 거사불교의 부흥에 힘썼고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일본, 티베트 등의 고승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며 불교대중화에 노력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영국의 불교학계에서는 개인의 독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님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개)와 감식초 및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불로화정 본포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시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급과 봉사(佛事) 시구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담(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신경정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려고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구분	비고
2인 1실	전세
1인 1실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최대 400,000원(개인부담)

실버타운 전세안내

※ 단 입원실 사용 1개월씩, 식대 각자 부담